

가지 제거작업을 위한 작업위치 확인 중 근로자 떨어짐

재해 개요

2017년 6월 22일(목) 10시 25분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OO주차장 주변 가로수 상부 고사가지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나무 지주목(높이 약 1.65m)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던 도중, 발을 헛디뎠다 지면으로 떨어져 늑골 및 두개골을 펜스와 바닥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 중 7월 20일(목) 사망한 재해임

재해 관련사진



[사진- 전정작업 전·후 비교]



[사진- 재해발생상황도]

재해당일 공영주차장 주변의 수목 고사가지 제거 요청 민원(6.20.)에 따라 1차(6.21.) 고사가지 제거작업을 완료하고 2차 고사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준비 중이었음. 재해자는 작업반장의 작업에 대한 교육 도중 나무 옆 펜스와 지주목을 밟고 나무에 올라가 자를 나무의 위치를 파악하던 중 다리를 헛디뎠다 미끄러져 떨어짐

재해발생원인

○ 근로자 통제 등 관리감독 미흡

고소작업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발판 설치,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작업준비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, 작업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단독으로 임의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였고, 채용시 교육 미실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 미달 등 관리감독 미흡.

○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

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,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지 못함.

재해예방대책

○ 근로자 통제 등 관리감독 철저

관리자가 지시한 작업만 근로자가 하도록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통제하고 채용시 교육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.

○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

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.